

국제개발원조와 Public Private Partnership

최 민 경 /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연구원

I. 민관협력 활성화의 국제적 동향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UN 개발재원회의, 파리 선언, 결과중심의 관리(Result Based Management : RBM) 등과 같이 원조의 효율성제고와 함께 개발 원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주체와 개발지원방식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즉, 이는 지금까지 정부기구가 중심이 되어 온 ODA 사업을 기업 및 NGO/NPO, 대학 등과 같은 다양한 민간 주체와 협력하여 실시함으로써 대외원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프라 설비 구축에 있어 민간은 공공부문이 가지는 재정적 제약을 해결할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나아가 근래에는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현지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포괄적인 민간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민간의 역할은 재원의 제공뿐만 아니라 인프라 시설의 관리와 지역의 인프라 개발 계획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 개발원조의 패러다임 전환

1990년대는 선진국들의 원조피로현상과 함께 개도국의 빈곤문제가 더욱 심화된 시기로, 이에 국제기관 및 정부개발기구에서는 ODA의 양적 확대와 대외원조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기업(private enterprise)을 비롯한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자금과 기술, 전문성을 ODA사업에 적극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 중 OECD/DAC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민간투자가 세계경제의 성장과 개발을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이자, 수원국의 고용창출, 빈곤층의 수입증대, 지식이전, 경쟁력 개선, 글로벌 경제에의 효율

적인 통합의 계기가 되며, 이는 나아가 빈곤감소와 개도국의 생활환경 개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2003년 OECD는 ‘개발을 위한 투자 이니셔티브(The OECD Initiative on Investment for Development)’를 통해, 각국의 무역, 경쟁, 세금제도, 공공 거버넌스 및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등의 광범위한 투자환경정비를 지원할 것을 표명하였다.¹⁾ 이는 OECD/DAC를 중심으로 한 주요 원조 공여국들이 민간투자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개발참여가 미치는 개발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OECD는 민간투자가 MDGs달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에 착목하여, 정부의 ODA가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²⁾

두 번째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ODA 사업방식에도 큰 인식변화가 있었다. 즉, 종래의 ODA사업 방식은 공여국이 원조사업을 실시한 뒤 그 후의 사업운영은 기본적으로 수원국 정부의 책임아래 실시되었으나, 근래에는 유지관리를 포함한 사업전체의 운용까지 관여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원조사업의 실시 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개발사업의 시작단계에서부터

민 간 과 협 력 하 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형태가 개발원조 사업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움직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³⁾이 있다. 현대사회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국제화되면서 기업들의 개도국 및 최빈국의 빈곤, 환경, 의료 및 교육 등의 지구적 과제에 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지는 것이 지속적인 기업경영의 기초라는 인식도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는 CSR이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략적이고 경쟁적인 이익이 된다는 기업들의 인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도 시민사회의 구성원(corporate citizen)으로서 공공성을 배려한 경영이 요청되고 있어, 점차 기업과 NPO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의 주요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떠나 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현지에서의 기업이미지의 제고와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민간투자(private investment)의 추이

개도국으로 흐르는 자금 중 ODA가 전 자금 유입

1) OECD Council "OECD Statement to the Follow-up of the UN Millennium Declaration and Monterrey Consensus, 2005

2) OECD "Investment for Development- Investment Policy Co-operation with Non-OECD Economies, Annual Report 2006

3) CSR이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 기업이 장기적인 생존과 수익창출을 위해 윤리·환경·신뢰·투명·혁신경영, 지배구조개혁, 사회봉사, 사회공헌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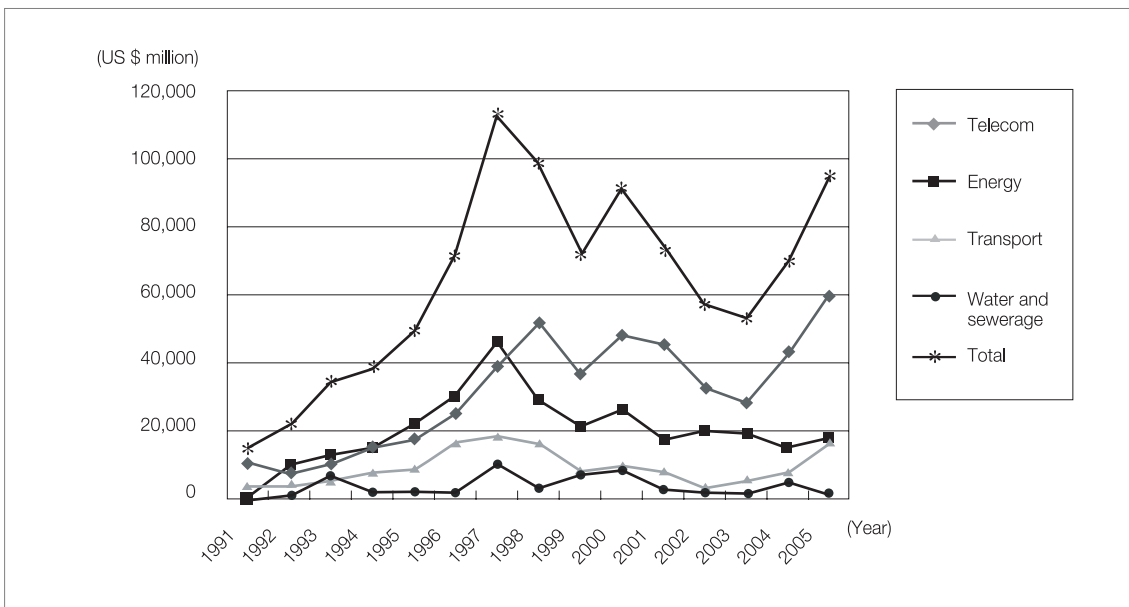
량의 24.6%(2004년), OOF⁴⁾와 민간자금과 같은 ODA 이외의 자금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정비·유지관리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수요는 개도국 정부의 재정자금과 원조국의 공적자금만으로는 충당될 수 없다. 따라서 민간협력을 통한 자금협력, 기술 활용, 인프라정비의 추진은 ODA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가. 부문별

세계은행의 통계(2007)에 의하면 개도국의 인프라 부문(전기통신, 전력, 운송·교통, 상하수도)의

민간투자 연도별 흐름은 그림1.과 같다. 민간부문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자금 투자는 일시적인 하강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의 적극적인 개입에는 글로벌화, 금융 시장의 자유화 등의 거시 경제적 요인과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정부역할 축소와 같은 정치적 변화라는 배경이 있다. 분야별로 특히 전기통신(telecom) 부문의 민간 투자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개도국에 근거를 둔 민간 기업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1998년~2003년의 투자 흐름 중 약 39%의 프로젝트가 이들 기업에 의해 실시되었고, 2001년~2004년에 실시된 프로젝트의 상위 10개 스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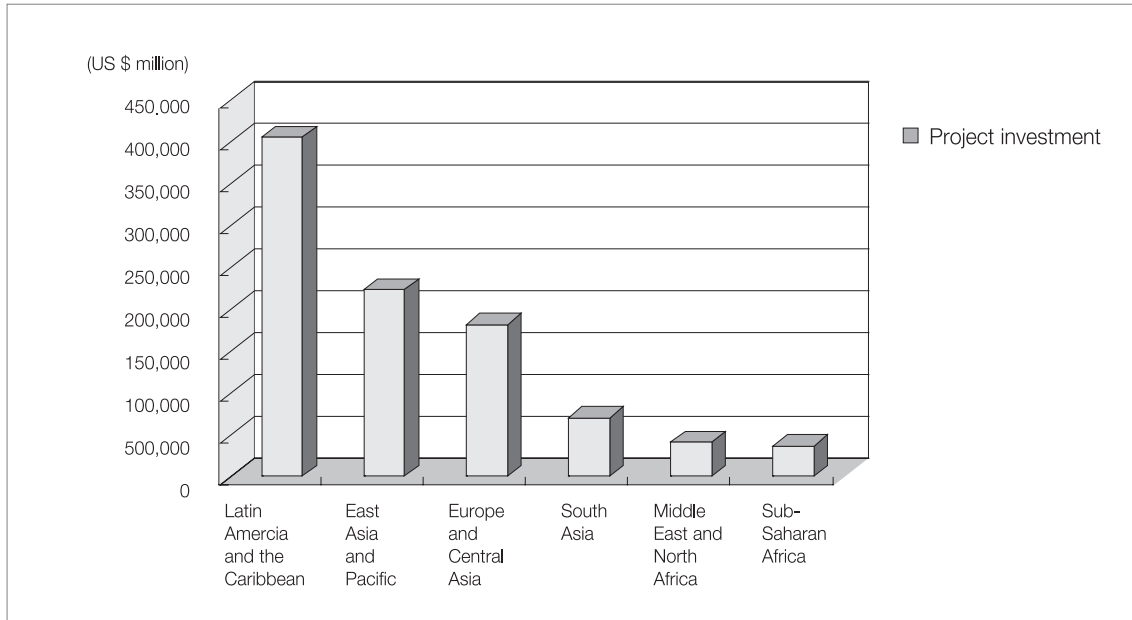
〈그림 1〉 민간투자의 부문별 추이



출처: World Bank, PPI Project(2007)의 통계참조 작성

4) Other Official Flows, ODA외의 공적자금

〈그림 2〉 지역별 민간투자 현황



【출처:World Bank, PPI Project(2007)의 통계참조 작성】

중 절반이 개도국을 기점으로 한 신흥시장의 기업 (emerging market sponsors)이었다.⁵⁾

향상, 서비스 질의 향상과 확대에 필요한 자금조달 과 같은 섹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나. 지역별

한편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지역별 민간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중남미와 카리브 해 지역(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이 총 4,073 억 달러로 가장 높았고 이는 전체의 약 42.3%를 차지한다. 동 지역의 민간투자형 인프라건설은, 1990년 대 민간이 보유한 노하우와 경쟁도입을 통한 성과

다. 사업유형별

사업유형별로는 최근 그린필드형(greenfield)에 대한 민간투자가 모든 부분에서 증가하고 있다. 전 기통신 분야는 그린필드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 비율이 1990년대의 40%에서 2001~2005년 60%로 증가하였다. 전력은 54%에서 59%, 운송 · 교통은 36%에서 50%, 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은

5) 'Emerging Market'이란 우리말로로는 '떠오르는 시장', '신흥시장' 정도로 번역된다. 금융시장,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본시장 부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가리키는데, 보통 개발도상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시장을 말한다. 5개 신흥 스폰서의 이름은 Emirates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United Arab Emirates), Reliance Industries(India), Malakoff(Malaysia), America Movil(Mexico), Gazprom(Russian Federation)이다.

9%에서 36%로 증가하였다. 이는 민간 기업들의 정치적 위험과 지나친 규제 등의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고자하는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 외에 위탁경영 및 임대계약(management and lease contract) 형태의 민간투자도 다소 증가하였으며, 위탁경영 계약의 경우 1990년대의 2%에서 2001~2005년에는 6%로, 임대계약은 2%에서 4%로 각각 증가하였다.⁶⁾

II. 국제개발원조에서의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도입

1. PPP란 무엇인가

PPP는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는 민관(民官) 파트너십 또는 공공-민간파트너십이라 한다. 여기서 공공(Public)이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차원의 공공자원을, 민간(Private)이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자원을 의미한다.⁷⁾ 그리고 PPP란 일반적으로 병원, 학교, 감옥, 도로, 다리, 터널, 철도, 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과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에 의해 제공되었던 인프라 자산(assets)과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⁸⁾ 나아가 PPP는 특별한 개발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간 기관과 민간부문과의 협력⁹⁾이나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정부, 민간기업, NPO, 커뮤니티 기반의 조직(CBOs)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라고 정의되기도 한다.¹⁰⁾

2. PPP의 의의

PPP를 통해 정부는 부족한 ODA재원을 민간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이 이미 전문성을 확보한 분야의 협력 사업의 추진과 민간의 경영방식의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정부는 PPP를 통해 민간의 역량(자금조달, 기술능력, 경영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저렴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민간자금의 활용은 ODA의 GNI 대비 0.7%달성 및 HIPC에 대한 부채탕감과 함께, MDGs 달성을 위한 개발자원 확보의 측면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한편, 민간 기업은 PPP를 실시함으로써 높은 리스크와 낮은 수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를 사업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인프라 정비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원조수단이고, 중요한 것은 개도국 주민들에게 그 서비스

6) Michel Kerf and Ada Karina Izaguirre 'Revival of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 look at recent trend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Gridlines No. 16, Public-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 Jan 2007

7) Albert N. Link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novation Strategies and Policy alternatives,' Springer, 2006

8) IMF, 2007, Manual on Fiscal Transparency, Glossary

9) OECD, 2002, 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10) 國際協力機構(JICA)國際協力總合研修所『途上國の開発事業における官民パートナーシップ(PPP)導入支援に関する基礎研究』2005 p.8-9

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참가는 효율성 제고의 측면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지속성 향상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나아가 PPP는 공공의 재정 및 경영상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고용,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PPP의 이점을 활성화시키려면 정부와 세금부담자, 서비스 혜택자의 이득이 되면서, 민간 기업의 이윤(profit) 창출과 리스ٹ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

3. PPP의 국제적 동향

최근의 개도국 인프라 정비를 둘러싼 최대의 논의는 인프라 정비와 빈곤감소의 연계이다. 이를 빈곤감소를 위한 인프라 정비(pro-poor infrastructure development)라 한다. 이 움직임은 2000년에 개최된 UN총회에서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향설정과 이를 주류화하기 위한 제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선언된 MDGs는 빈곤감소 목표와 함께, 개발을 위한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등의 폭넓은 파트너십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Goal 8)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부족은 사람들의 니즈의 충족과 기업들의 발전, MDGs 달성에 있어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전

기통신, 에너지, 교통, 식수 및 위생시설을 포함한 인프라의 전 세계적인 수요는 향후 1년에 약 1조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¹¹⁾ UN MDGs 달성에 있어서 PPP가 미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MDGs의 안전한 식수에서의 지속적인 접근(Goal 7-11)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비율(약 10억 명)과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인구비율(약 20억 명)을 반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약 150억 달러의 연간 투자액을 약 300억 달러, 즉 2배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추정되고 있다.¹²⁾ 또 다른 예로는 전력문제가 있다.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약 10억 4천명에게 필요한 인프라 투자금액은 약 7천 억 달러로 추정되며,¹³⁾ 막대한 개발재원의 증가를 공공의 ODA만으로 충당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추가적인 투자 협력과 혁신적인 자원개발이 없이는 개발자금의 확보와 MDGs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해, 코피아난 전 UN사무총장의 주도로 'UN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가 출범하였다.¹⁴⁾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11) OECD 'OECD Principles for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Mar 2007

12) OECD 'Paper on partnerships involving the private sector', Oct 2004

13) OECD 'Investment for Development- Investment Policy Co-operation with Non-OECD Economies', Annual Report 2006

14) Global Compact(이하 GC)는 1999년 1월 31일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코피 아난 전 UN사무총장이 제창하였다. 기업 지도자들의 GC에 참가의 촉구 및 UN,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함께 인권, 노동, 환경 분야의 10개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GC는 2000년 7월 26일 뉴욕 UN본부에서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2004년 6월 24일에 개최된 최초의 GC leaders' summit에서, 사무총장에 의해 부패방지에 관한 10번째 원칙의 추가가 발표되었다. GC는 기업이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 행동할 것과 다른 사회적 주체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포괄적인 글로벌 경제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07년 1월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2,900개사 이상의 민간 기업을 포함한 3,800단체가 멤버를 구성하고 있다. (상세사항은 를 참조)

협약으로서 인권과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경영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지속적인 세계경제 발전을 이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의 ‘UN개발재원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는 무역촉진, 개도국의 국내자금 동원, 채무삭감, 글로벌 과세 등의 개발자금 확보의 필요성과 함께 국내외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혁이 강조되었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MDGs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이 중요함과 정부와 개발원조기관의 자금, 전문성만으로는 MDGs를 달성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어 8월에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파트너십과 의안 제안을 기재한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이 작성되었다. 선언문에서는 커뮤니티와 사회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private sector)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같은 해 UNDP는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업 육성 구상(Growing Sustainable Business Initiative: GSB

Initiative)”을 제창하였다. GSB 구상이란, 민간기업과의 연계로 시행된 사업이 기업의 신규시장 개척과 개발도상국의 니즈충족 및 빈곤감소를 위한 투자사업의 선정과 실시로 이어지는 구상을 말한다. GSB 구상의 목적은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장려하여, 다국적 기업과 지역의 중소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에 있다. 2002년에 발족한 GSB구상의 방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여러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ERICSSON이 탄자니아에서 실시한 ICT사업을 들 수 있다. 당시 탄자니아는 국토의 90%, 인구의 75%가 전화 통신망에 접속할 수 없는 현황이었다. 그리고 ERICSSON은 이미 탄자니아의 도시부에 진출해 있었지만 통신 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농촌부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UNDP는 ERICSSON과 현지 정부·기업·시민을 중개하여 동 기업이 ‘공유 네트워크’ 등의 통신 인프라 설비를 정비하도록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농촌부 등의 지방에서도 교육과 의료에의 접근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동 기업이 가지는 통신기술을 현지 사정에 적용함으로써 통신비용을 큰 폭으로 삭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세계은행은 최근 인프라 건설을 중요시하는 “포괄적 개발(Inclusiv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표명하고, 인프라 건설을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의 교량으로 삼고 있다. 2005~2010년 동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구축(수리와 운영포함)수요는 매년 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인프라 구축에 있어 PPP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관련된 다자간 기술원조 금융기구로는 민관 인프라 자문기금(The Public-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이 있다. PPIAF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한 개도국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1999년에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 아래 선진국의 원조정책은 공적·민간협력의 틀에서 모색되기 시작하였으며, 공여국 개발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본격적으로 유도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민간의 적극적인 개발 원조 참가유도와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으로 보아, 민간의 자금과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사회개발협력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OECD/DAC의 동향

최근 대부분의 OECD/DAC 회원국들은 세금율의 향상과 공적 차용의 어려움이라는 경제적·정치적 환경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PPP를 지역의 경쟁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의 현대화에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PPP의 운영 및 집행조직은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공공과 민간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표1.을 보면 2005년도에 들어서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ODA에 의한 PPP 프로젝트를 비교적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OECD/DAC 선진국의 PPP지원액의 추이〉

(단위: US \$ million)

원조국	2002	2003	2004	2005
캐나다	51	5	20.75	141.95
덴마크	-	-	1.03	1.31
프랑스	-	-	18.64	6.21
아일랜드	-	15.08	16.76	23.19
일본	16.6	13.3	15.73	15.73
룩셈부르크	-	-	0.62	0.75
네덜란드	26.09	23.04	35.42	29.4
뉴질랜드	0.12	0.08	0.24	-
노르웨이	-	25.02	3.83	48.44
포르투갈	-	-	0.08	-
스웨덴	20.58	2.66	10.23	18.38
스위스	2.25	0.22	-	0.2
영국	85.52	-	34.82	10.63
미국	303	58	59.73	64.48
DAC회원국 총액	516.47	142.4	217.88	360.67

출처 : OECD DAC Data(2006)에서 발췌

4. PPP의 사례

최근 개발도상국을 시장으로 주목하고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상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시장에 투입하는 것이, 빈곤층의 생활향상과 자존심의 함양뿐만 아니라 기업의 잠재적 시장의 조기 기반확보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몇몇 기업들은 자국정부와 현지정부, 국제금융기관, NGO 등과 협력하여, 자사의 부족 자원을 보완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시장개척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공적 원조기관과 기업의 파트너십의 대표적인 PPP사례에는 휴렛팩커드사와 ABB사의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있다.

먼저 휴렛팩커드(HP)사는 소액금융지원(microfinance)의 현황을 조사하고, PPP가 비즈니스와 사회적으로 건전한 투자가 된다는 결론 하에 우간다의 소액금융지원 실시기관(Micro Finance Institute: MFI) 세 개 사 및 NGO와 협력을 맺었다. 또한 USAID로부터 자금 원조를 받으며 소액금융지원 시범사업을 2004년1월부터 실시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HP사는 원격결산시스템(Remote Transaction System: RTS)이라는 소액금융지원용 휴대기구를 개발하였다. 이는 MFI의 RTS서버와 무선접속을 할 수 있는 소형기구로 이를 통해 지점과 출장소가 없는 지방까지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소액금융지원의 잠재수요자수 5억 명을 감안할 때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다. (2004년 현재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됨) 이와 같이 판로도 시장의 니즈도 빈약한 상태에서 HP사가

신규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USAID의 자금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발전설비와 산업용 로봇으로 유명한 대기업 ABB사는, 개도국 사회를 전자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실행하는 ‘전력에 대한 접근(Access to Electricity)’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탄자니아, 우간다, 세네갈, 인도에서 발전·송전설비를 설치하였다. 현재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수는 약 16억 명 정도이며 그 중 약 35%가 인도, 약 32%가 사하라 이남에 살고 있다고 한다. ABB사는 탄자니아에서 UNDP, 지역공동체 및 WWF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력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우간다에서는 세계은행의 ‘Energy for Rural Transformation Program(10년간 지방의 전기 보급율을 1%에서 10%로 끌어 올리는 사업)’에 참가하였다. 이와 같은 ABB사의 ‘Access to Electricity’ 프로그램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각 개도국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다른 회사에 앞서 개도국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개발을 함으로써 장래의 수익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세계은행, UNDP, WWF, 지역기구 등의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 아래, 개도국의 특수한 니즈와 지방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부의 저금리 용자를 이용하여 자사의 자원을 확보하며 개도국 시장에 진출하는 민간 기업의 조류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국제기구와 재단 및 기업과의 PPP로는

WHO의 사례가 있다. WHO는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UN 출연기구이나, 최근에 들어 WHO와 제약회사, 빌앤드멜린다 게이츠(the Bill and Melinda Gates) 재단 및 록펠러(Rockefeller) 재단, 셸(Shell)재단 등과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WHO 예산의 절반이 이러한 민간 기업 및 재단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민간자금의 도입과 가난한 국가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인프라개발 및 기초 서비스에 대한 투자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개발기구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력기금에는 대개도국 정부 직접 지원계획인 PPIAF와 도전기금,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계획인 EEIF 등이 있다.

5. PPP의 과제

PPP를 통한 민관협력 개발 사업은 새로운 개발재원의 확보와 지속적인 프로젝트 실시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민간의 과도한 투자자금회수로 전기 및 통신서비스 요금, 도로통행료, 수도요금 등의 서비스가격이 폭등하여, 개도국 빈곤층이 요금을 납부할 수 없어 개발사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개도국사업의 리스크, 사업의 지속성,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등의 과제가 있다.

우선 DFID는 민간부문 활용을 통한 인프라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1997년 7월 ‘민관 인프라 자문기금(PPIAF)’을 창설하였다.¹⁵⁾ 이는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개발도상국 인프라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정부가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책정과 기술지원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 2000년도부터는 개도국사업에 초점을 둔 도전기금(Challenge Fund)을 설립하여, 재원을 민간부문의 발전과 민간의 개도국 개발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금으로는 ‘금융부문 참여활성화 도전기금(Financial Sector Deepening Challenge Fund: FDCF)’ 및 ‘사업연계도전기금(Business Linkages Challenge Fund: BLCF)’이 있다. BLCF는 1,500만 파운드에 이르는 무상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 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형성을 위한 금융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III. OECD/DAC회원국의 PPP 사례

1. 영국(DFID)

DFID의 인프라정비 지원은 민간자금 활용(PPP)

그 밖의 다자협력 계획에는 ‘민간 인프라 개발 그

15) PPIAF는 일본과의 공동이니셔티브, 세계은행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 현재 공여주체는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세계은행, ADB, UNDP를 비롯한 16국가 및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사업에는, 정보보급을 위한 워크숍, 국제회의 개최, 국별조사, 사례조사, 개도국 기술컨설턴트 조달, 지역별 규제당국과의 네트워크 지원 등이 있다. (상세정보는 <http://www.ppiaf.org/>를 참조)

룹(Priva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Group: PIDG)'이 있다. PIDG는 2002년 DFID를 비롯한 여러 공여국·기관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실용적 그리고 전략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¹⁶⁾ '신흥 아프리카 인프라 기금(Emerging Africa Infrastructure Fund: EAIIF)'은 2002년 PIDG의 이니셔티브로 만들어진 대표적 기금이다.¹⁷⁾ EAIIF는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개발과 인프라정비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기간 15년까지 1,000만 달러에서 3,650만 달러에 이르는 용자를 민간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¹⁸⁾ 이상 언급한 다양한 다자간기구 활용의 배경에는, 원조자금의 효율적 활용(Value for Money)과 언타이드 조달을 통한 효율적인 건설팅서비스를 지향하는 영국적 특성이 있다.

2. 캐나다(CIDA)

영국이 다자간 기금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PPP를 전개하고 있는데 반해, 캐나다의 경우 다양한 자국 단체들과의 파트너십과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등의 다자기구에 대한 출연금

및 지원금을 통해 PPP를 실시하고 있다. 즉, 민간기업, 대학, NGO 등의 다양한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PPP를 실시하기 때문에, 경제사회인프라의 경우 캐나다 정부가 직접 인프라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내의 개발주체를 통한 간접적 지원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CIDA의 PPP는 민간자금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PFI형식의 PPP라기 보다는, '개도국 산업 협력 프로그램(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 CIDA-INC)등의 활용을 통해 민간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과 동시에, 민간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돕는 이중적 효과의 기대 아래 PPP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CIDA-INC를 통한 PPP의 사례]

CIDA-INC이 캐나다기업의 개도국진출 및 사업전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예로 Forages사의 토고(Togo) 우물건설사업의 예가 있다. Quebec에 본사를 둔 Les Forages Technic-Eau사는 1992년~1996년에 토고 수력국(Hydraulic Directorate) 대표단과의 미팅을 포함한 시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사는 이를 계기로 토고정부와 60개의 수도

16) SECO(스위스), SIDA(스웨덴), DGIS(네덜란드)가 동참하였다.

17) EAIIF는 DFID와 네덜란드 개발은행(FMO), 독일 투자개발은행(DEG), 남아프리카 개발은행(DBSA)의 출자로 창설되었다. 2007년 현재 기금은 3억 500만 달러에 이른다. PIDG의 이니셔티브로 창설된 그 밖의 기금에는 '프로젝트 개발 기금(Project Development Facility: DevCo)', 'GuarantCo 지역통화 보증기금(GuarantCo Local Currency Guarantee Facility)' 등이 있다. (EAIIF에 관한 상세정보는 <http://www.emergingafricafund.com/home.aspx>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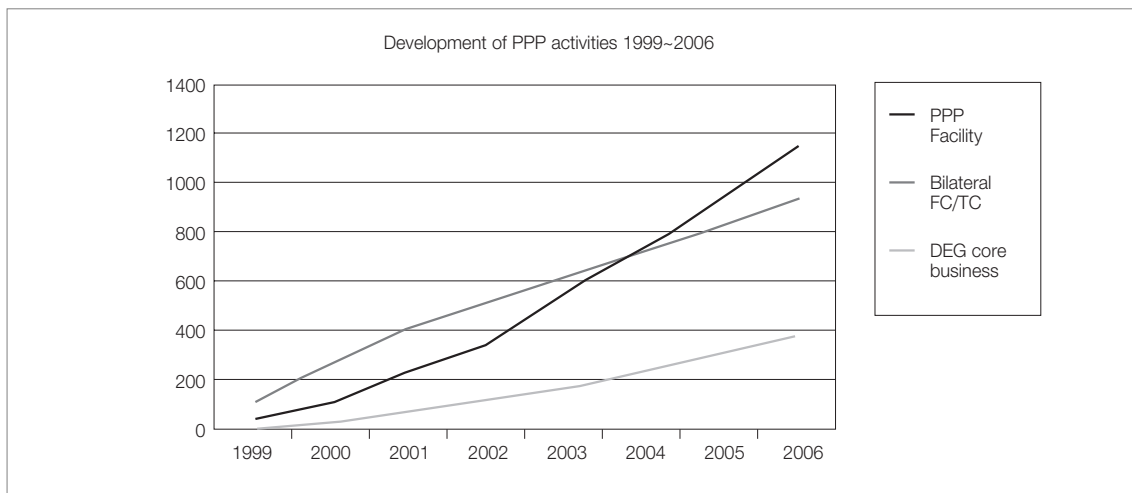
18) 그 밖의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에는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the Urban Environment: PPPUE)'이 있다. PPPUE는 1994년 UNDP의 이니셔티브로 창설된 기금으로, 도시 빈곤층에 대한 기초인프라를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조건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펌프계약을 맺었고, 나아가 향후의 토고의 시장 가능성이 크다 판단하여 추가적인 사업전개를 결정하였다. CIDA-INC의 지원으로(59,400달러) Forages사는 1996-1997년에 걸쳐 사업가능성 조사(viability study)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Forage사는 수동펌프식 우물건설과 보수 및 수리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합작회사 Forages Technic-Eau Togo SARL을 설립하였다. 그 후 Forages사의 요청에 의해 합작회사 창업과 연수를 지원하기위해 CIDA-INC프로그램에서 386,475달러가 추가 제공되었다.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Forages사는 가나(Ghana)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개발의 측면에서는, Togo SARL의 수동펌프식 우물건설로 여성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먼 곳에서 물을 길러올 필요가 없게 되었고, 식수에 대한 접근성과 보건위생상태도 향상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3. 독일(GTZ)

GTZ는 독일의 민간 기업 외에 60개국 이상의 민간 기업 및 단체와 300개 이상의 PPP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 기업은 PPP를 통해 GTZ의 연락망과 전문성에 대한 접근성 향상, 국제적인 전문가 및 현지 주요정책결정자와의 네트워크 활용, 재정적 부담경감, 기업의 기업이미지 개선 및 소비자들의 신뢰확보 등의 이점을 통해 개도국 시장진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 반면, GTZ는 현지 인력에 대한 취업 및 소득 창출기회 확대, 민간의 혁신기술 도입, 현장프로젝트 지속성 향상, 환경보호 및 사회적 기준을 도입으로 인한 개발의 지속가능성 보장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PPP를 시행할 경우 양자 간의 비용과 리스크는 공평하게 분담한다. 유럽의 기업 및 계열사, 무역협회, 상공회의

〈그림 3〉 PPP사업의 증가(1999-2006)



출처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BMZ)「Development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Excerpts from the Annual Report2006」2006, p.8

소 등의 민간부문은 사업규모와 분야에 상관없이, 개발도상국에서 실시되는 사업이면 GTZ의 PPP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¹⁹⁾ 단, GTZ의 PPP프로그램은 보조금(subsidy)지원 형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금 분담을 포함한 공동협력사업이다.

가. 지원방법

기업들은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을 통해 GTZ의 PPP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PPP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업의 개도국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GTZ 및 독일정부의 개발목표 및 일정한 PPP선정원칙에 프로젝트가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선정하고 있다. 즉, 기업은 ①독일정부의 개발협력 정책 및 원칙에 부합되는지, ②파트너십이 정부기관의 개발목표를 충족함과 동시에 기업의 상업적 이익에 기여하는지, ③ 민간부문의 재정적, 인적 또는 물질적 기여가 적어도 프로젝트 비용의 50%이상을 차지하는지, ④ 보건, 교육, 환경 등과 관련된 과제를 상업적 활동에 반영하여 일반적인 상업 활동 이상의 것을 추구할 것을 제안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PPP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유럽 국가 시민이 주요 경영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유럽 국가 시민이 출자비율 25%이상을 보유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제도상 유럽기업 전체가 지원대상이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독일기업이다.

[GTZ와 독일기업의 PPP사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은 매년 백만 명이상의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하며 그 중 반은 아동들이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약은 말라리아의 내성이 날로 강해져 더 이상 효과가 없다. WHO에 의하면 최근 알테미시닌(Artemisinin)을 기초로 한 복합약물 ACTs가 말라리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ACTs는 보통 말라리아 치료제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인구의 대부분인 빈곤층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독일의 의료구호기관 Action Medeor와 GTZ, 영국 제약회사 Advanced Bio Extracts(ABE)는 아프리카에서 ACTs를 저가로 현지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현재 5,000명 이상의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농민들에게 알테미니신을 함유하고 있는 1년생 쑥을 국제환경 및 사회적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재배법을 교육훈련하고 있다. 또한 ABE는 농민들이 생산한 쑥과 천연 알트미니신의 구매를 보장하고, 2007년 초부터는 우간다와 케냐의 자사공장에서 실질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파트너십을 통해 동아프리카의 제약회사들이 ACTs를 생산하고 WHO의 인가를 획득하도록 교육 훈련 및 기술전수를 실시하고 있다.

19) GTZ가 실시 중인 프로젝트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면 현지기업들도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4. 미국(USAID)

미국의 PPP란 GDA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민관연대(Public Private Alliance: PPA)를 의미한다. PPA란 USAID와 민간 기업, NGO, 재단 등의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협력하여, 개발과제를 명확히 하고, 과제해결을 위해 자금과 인적자원, 리스크를 분담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PPA는 주로 ‘경제성장·농업·무역’, ‘글로벌 보건’, ‘민주화·분쟁·인도적 지원’ 등의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미국기업 및 재단, NGO, 대학, 개도국 정부, 개도국기업 등의 PPA파트너는 USAID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및 물자 제공, 경영과 관련된 기술지원, 제품 또는 상품개발, 프로젝트 설계, 지적자본 제공, 판로확대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은 USAID의 전문성과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술적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USAID는 개발도상국의 개발목표달성을 위해 각 개발주체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01년 GDA(Global Development Alliance)사무국을 설치하였다. GDA사무국은 PPA사업 중 무상자금협력(grant)이나 인센티브펀드(incentive fund)²⁰⁾의 제공, 전문가파견 등의 기술지원, PPA사업의 기획

및 민관매칭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GDA 내의 민관 동맹형성을 위한 지원책으로 인센티브펀드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또한 USAID는 적극적 동맹관계 형성을 위해 직접적인 파트너와의 협력 뿐 아니라 국제사업리더포럼의 개최 등 각 파트너들의 성장도모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USAID는 미국의 ODA에 민관을 포함시킴으로 원조효율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가 활성화를 통해 민간자금의 개발사업 투입증대를 꾀하려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SAID의 PPA사례]

-지속적인 수목작물(tree crop)지원 프로그램(STCP)-

이 프로그램은 소작농들의 경제 및 사회적 복지 개선과 수목작물의 환경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에서 실시되었다. 서부 아프리카의 주요 수목작물 상품인 코코아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지역의 농민들의 생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 세 지역에 약 300만 명의 소작농들이 코코아를 생산하나, 세균성감염과 해충피해로 매년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다. 나아가 취약한 연락망 및 정보체제와 비효율적인 시장시스템, 국가정책의 결함은 초콜릿 생산업자 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20) 2002년 PPP프로젝트형성을 장려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현장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자금 및 매칭 무상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PPP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제고하고 USAID의 참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GDA 사무국(secretariat)에서는 Incentive Fund를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 기금은 지역 및 국가 간의 동맹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2002년 이후부터 USAID는 조직 및 사업 프로세스에 있어 동맹관계 형성을 위한 리더십을 시작하여 2004 회계연도에는 60여개의 public-private alliance를 Incentive Fund로 지원하였다. (약 7백만 달러)

이에 USAID는 미 농무부와 Mars, Inc., Hershey Company, ADM Cocoa, Nestle Products, Kraft Foods 등 45개사 이상의 초콜릿생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World Cocoa Foundation(WCF), 국제열대농업연구소(Institute of Tropical Agriculture), 스미스소니안 협회(Smithsonian Institution)와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국제 초콜릿산업용 코코아빈의 품질 및 유용성 개선을 위한 생물다양성 기법촉진, 참여 농민들의 노동환경개선 등이 실시되었다. 결과적으로 6만 명이상의 소작농들이 농민현장학교를 졸업하였고, 약 30~50%의 생산성향상이 있었다. USAID와 WCF를 비롯한 초콜릿업체들의 자금 공여는 각각 5백만 달러였다.

5. 일본(JBIC과 JICA)

가. JBIC의 PPP

JBIC은 수원국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차관사업을 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간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PPP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PPP가 실시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이권(concession)법제도 지원, 요금체제 수정, PRSP작성 등을 통해 PPP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엔차관과 국제금융업무를 유기적으로 활용한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비롯해 일본기업이 개도국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직·간접적 환경조성 등이 있다. 대표적인 JBIC의 PPP 프로젝트에는 ‘베트남 푸미(Phu My) 전력지원’ 프로젝트가 있다. 이는 엔차관과 투자금융을 활용한 민간투자 인프라 건설의 예로, ODA와 PPP의 유기적 추진을 통해 개도국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 민간투자의 확대로 이어진 경제협력 사업이다.

[JBIC ODA의 PPP 사례: 베트남 전력섹터 지원]

베트남은 1990년대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였다. JBIC은 호치민시를 포함한 베트남 남부의 전력수요 지원을 위해, ‘푸미(Phu My)화력발전소(1090MW)’ 건설 엔차관을 실시하였다. 또한 민간을 활용한 전력개발을 지향하는 베트남 정부의 방침에 따라, JBIC은 민간주도의 발전프로젝트 ‘민간활용형발전(Independent Power Producer)’

사업으로 건설·운영되는 ‘푸미제2·제3 화력발전소(각 715MW와 717MW)’에 해외투자금융을 제공하였고, 일본기업은 2~3호기에 출자하였다. 또한 제1~3화력발전소를 포함하여 3,000MW이 넘는 설비용량을 푸미에서 호치민까지 공급하기 위해, 푸미~호치민 간의 고압송전선의 건설이 엔차관으로 이루어졌다. 베트남 전력섹터 지원 사업을 통해, 일본의 민간 전력회사는 베트남 투자에 대한 리스크로 민간금융기관으로만 충당하기 어려웠던 자금을 JBIC의 IPP사업을 통해 충당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나. JICA의 PPP

JICA의 기술협력 사업의 경우 일본기업 및 현지 일본계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중점을 두는 JBIC의 인프라구축 사업과는 달리, 개도국 내의 민간부문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파트너십을 이룰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PPP에 관해서는 JICA 단독으로 도입·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며, 다른 국내 원조관련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IV.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PPP전망

이상 민간 부문의 역할이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비롯한 MDGs 달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국제사회 개발원조의 패러다임 전환의 맥락에 비추어 고찰하였다. 무엇보다 DFID, CIDA, GTZ, USAID, JICA 및 JBIC 등의 OECD/DAC원조 선진국의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현황과 사례를 간략하게 개관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도 개발원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1. 우리나라 무상원조와 PPP

우리나라는 2010년 OECD/DAC가입을 앞두고,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 확대와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ODA/GNI 규모를 2010년까지

약0.12%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0년 ODA를 약 11억 달러('06년도 현재 약 4억 5천만 달러)로 추정할 때, EDCF의 증액과 함께 KOICA의 예산규모도 '06년도 약 1억 9천만 달러에서 약 4억 달러로 2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향후 양자간 원조 중 유상원조는 현 계획 수준을 유지하되 무상원조는 점차 확대될 전망으로, 그에 따른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사업요청의 증가를 앞두고, 우리나라 ODA는 몇 가지의 현안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무상원조의 주요 집행기관인 KOICA를 중심으로 고려할 때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첫째, 사업시행기관의 확보문제가 있다. KOICA사업규모의 확대에 상응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업체의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KOICA의 입찰에 참여하는 기관 및 업체는 한정되어 있다. 둘째, KOICA자체의 자원 및 인프라부족이 예상된다. 현재의 KOICA의 인력 인프라로는 사업규모의 확대에 부합한 양질의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사업의 프로그램화에 따라 전문화되고 다양한 부문(sector)별 계획책정을 통한 원조의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사업형태가 인프라시설 구축과 그에 따른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형 원조에서 프로그램화된 원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창의성을 가진 다양한 민간기업 및 전문가와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이와 같은 ODA의 규모확대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연장에 KOICA와 민간주체와의 협력사업 확대가

있다. KOICA는 민간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의 빈곤감소 및 경제 성장과 중장기적인 발전에 불가결한 인재양성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의 연계

개발사업의 PPP시행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 기업들이 ODA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도 일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범지구적 과제해결을 위한 공헌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시장 및 유통망개척이라는 상업적 이익과도 연계되어 윈윈(win-win)효과를 창출한다는 인식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사업으로 확대하여, 기업들이 원조에 대해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본격적인 PPP실행에 앞서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ODA를 통한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경제적 이익제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CSR)과 한국의 개발정책에 부합한 사업을 정부원조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업적 이익에도 연계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을 때, 우리나라 ODA의 PPP도 본격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3. MDGs의 달성을 위한 PPP

마지막으로, PPP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시장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과 그로인한 경제적 이익획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MDGs의 달성을 비롯한 수원국의 빈곤감소와 지속적인 성장과 원조효율성 제고 등의 ODA의 근본적인 목적에 근거해야 한다. 다시 말해, PPP시행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과 개발재원의 확보, 원조의 효율성제고 등의 외부적 요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지역주민들의 니즈에 근거한 참여적 개발, 빈곤감소와 MDGs의 달성 등 지속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모색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간협력을 고려할 때 ODA와 국익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하더라도, 개발원조의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라는 기본축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진정한 원조선진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